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5. 5.(목) 12:00 2022. 5.6(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5. 5.(목) 12:00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044-202-8902) 주무관 남영우 (044-202-8908)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및 사망사고 위험지역 '경보' 발령

❖ **1분기 감독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적 부실**

❖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주의보'**

❖ **고용부, 사망사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 감독기간 (5.9.~5.31.)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하였으며,

○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2년 1분기 점검·감독 현황 〕

(단위: 개소, 천원)

연도	실시	법 위반	사법조치	과태료	
				개소	금액
`21.3월	2,201	975	317	520	3,262,913
`22.3월	3,934	1,782	156	994	3,490,737

□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 ▲ (건설업) 2,535개소 (64.4%), ▲ (제조 및 기타업종) 1,399개소(35.6%)

○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 50인(억) 이상 : 2,076개소(52.8%), ▲ 50인(억) 미만 : 1,858개소 (47.2%)

○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였으며,

-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하였다.

〔'22년 1분기 업종·규모별 점검·감독 현황 〕

(단위: 개소, 천원)

업종		실시	법 위반	사법조치	과태료	
					개소	금액
계	계	3,934	1,782	156	994	3,490,736
	50인(억) 이상	2,076	1,109	82	681	2,247,234
	50인(억) 미만	1,858	673	74	313	1,243,502
건설	소계	2,535	1,054	119	598	2,286,744
	50억이상	1,447	761	60	468	1,689,228
	50억미만	1,088	293	59	130	597,516
제조·기타	소계	1,399	728	37	396	1,203,992
	50인이상	629	348	22	213	558,006
	50인미만	770	380	15	183	645,986

□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되었다.

- 아울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억)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되었으며

-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2년 1분기 점검·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 (총괄) 〕

(단위: 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반 사업장		
	계	건설	제조·기타
①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1-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315	234	81
1-2.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교육, 직무교육 등)	536	362	174
1-3.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1	177	374
② 안전보건조치			
2-1. 추락 주요 안전조치	1,119	891	228
2-2. 끼임 주요 안전조치	278	53	225
2-3. 작업장, 통로	274	196	78
2-4. 감전재해 예방조치	243	117	126
2-5. 화재·폭발 등 위험방지	189	44	145
2-6. 기계·기구 등 위험방지	179	56	133
2-7.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93	51	42
2-8.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66	38	28
③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86	72	14
④ 유해·위험기계 조치	63	56	7
⑤ 유해·위험물질 관리	457	319	138
⑥근로자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221	11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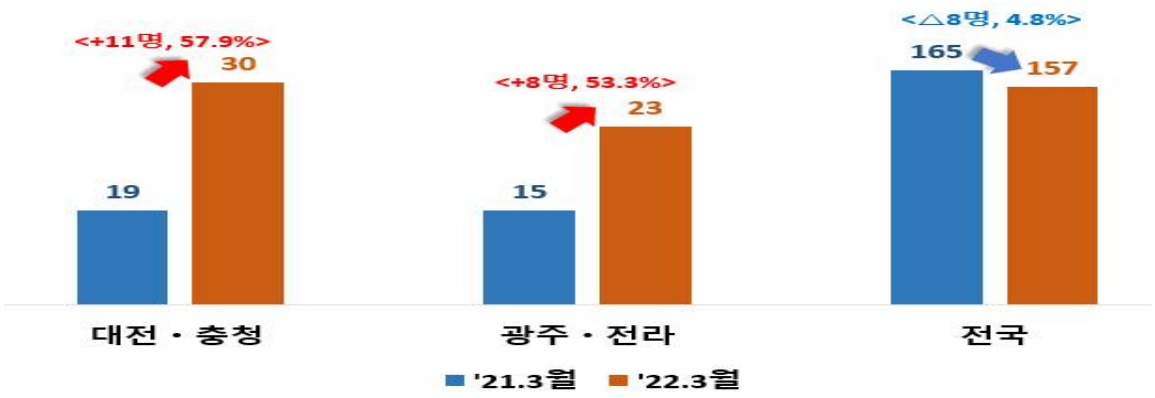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22.3.31.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4.8%) 하였으나,

○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 했다.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증감]



□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 미만 건설업**(12명, +8명)과
50인 이상 제조업(7명, +6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 (1월) +1명 → (2월) +5명 → (3월) +5명 → (누적) +11명

○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74%)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0인(억) 이상 사업장(현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 (1월) +9명 → (2월) +4명 → (3월) △5명 → (누적) +8명

○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 ▲ (부산·울산·경남) 1분기 사고사망자 27명, 전년(28명) 대비 1명 감소
▲ (대구·경북) 1분기 사고사망자 17명, 전년(16명) 대비 1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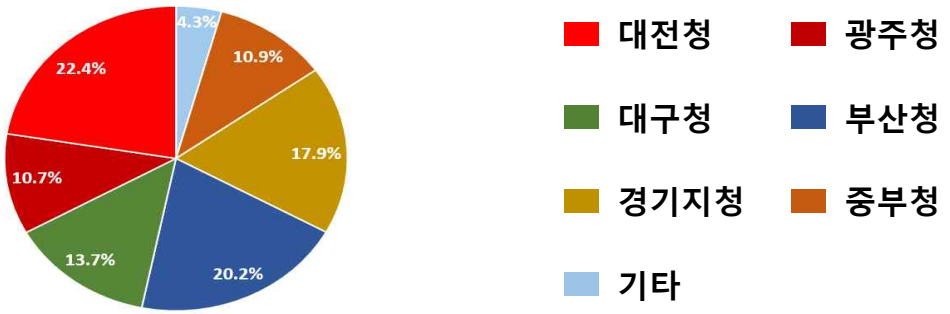
-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아울러 **위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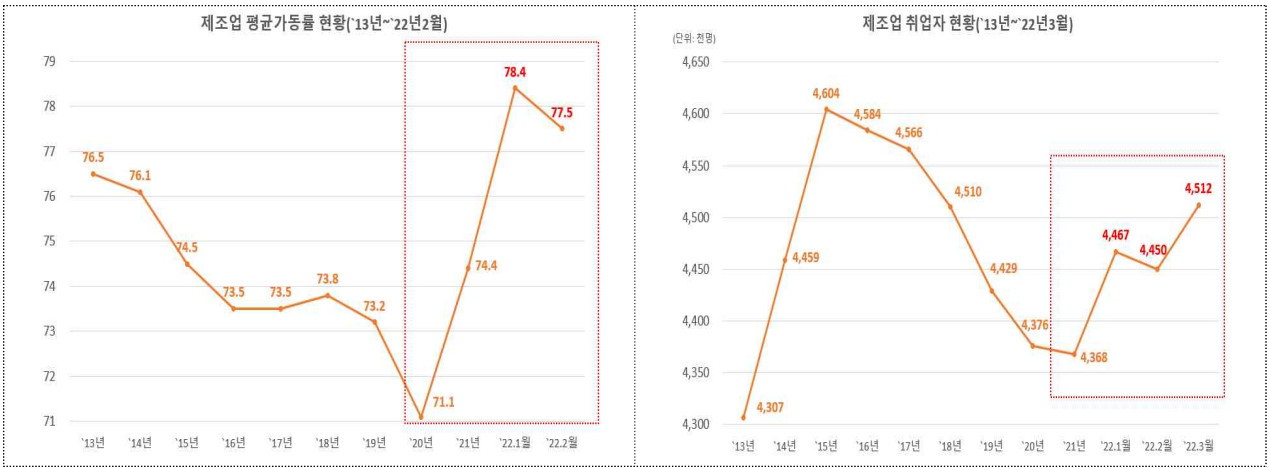
○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는 가운데,

* 다양한 안전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4개 위험등급으로 구분(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 지역별 분포 ］



○ ’22.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22.1월)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약 1.1만개소)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22.1월)

-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사망사고 발생원인 〉

▸ **(A기업, 끼임사고) 방호장치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 사고 발생 후 해당 기업 **전체 공장의 동일 기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계가 방호장치 전원이 꺼져있거나 고장 난 채** 운영

▸ **(B기업, 붕괴사고) 작업자**가 기업 본사에까지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생산량을 늘리기에 급급하여 위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5.9.~5.31.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심의 핵심 체크리스트 배포

○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하여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한다.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044-202-8902) 주무관 남영우 (044-202-8908)
<공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문성호 (051-850-6495)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현욱 (051-850-6476) 김우진 (051-850-6485)
<공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윤석호 (053-667-6393)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성경 (053-667-6362)
<공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이자형 (062-975-6396)
		담당자	근로감독관 한수연 (062-975-6436)
<공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책임자	과 장 김주실 (042-480-6302)
		담당자	근로감독관 조중범 (042-480-63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